

친미반공 이념의 극복과 지식인의 길

황광수

1 나는 '문학'이 학문으로 체계화될 수 없는 삶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글쓰기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견해에 공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문학의 그런 특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나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화 또는 체계화가 가능한 층위에서 이뤄진 담론들에 대해서조차 그 진위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채 무조건 반감을 드러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체로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문학적 글쓰기의 발원지로 여기고 있기에, 제도나 관습 또는 조직 속에서 개인이 받게 되는 상처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그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순수한) 슬픔을 반미에 이용했다고 상심하거나 정치적 역사적 민족적 차원의 글쓰기에 '거대 담론'이란 딱지를 붙여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이다. 거대 담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닌데도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들은 전체보다는 부분, 큰 범주보다는 작은 범주, 물질적 차원보다는 심리적 차원을 섬세하게 느끼고 인식하고 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치나 민족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온 사회심리적 실체(예컨대 '친미반공'이나 냉

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구호에 깃들어 있는 ‘단순성’에 대해서는 갈기를 세우고 시비를 걸어온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그들의 감성이 심히 걱정스럽다.

적색 공포를 시원스레 뛰어넘은 ‘붉은악마’의 출현, 공산주의자였던 장인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보여준 태도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밝힌 ‘촛불시위’ 등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가로막았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자주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대북 송금’과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으르렁대는 미국과 그것을 정전 협정의 파기로 여기겠다는 북한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위기적 상황은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과 일본을 묶어 동아시아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미국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긴 세월이 흘러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게 될 수 있을지 가능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하는 구호가 간간이 들려온다. “북한에 퍼준 돈이 핵폭탄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걸핏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항의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때를 만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드러내는 냉전반공 의식은 법과 제도 그리고 수구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고, 그 부당성을 깨우칠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아직도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 있기에 그들의 친미반공 의식은 아직도 견고하고 당당하다.

2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식인들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현대사를 질곡 속으로 몰아넣은 ‘무지 無知’를 질타하며 언론과 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또 어떤 이는 광화문의 ‘촛불

시위'가 순수한 슬픔을 훼손했다고 상심하고 있다. 앞의 예에 속하는 김용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일보』(2003년 2월 10일)에 「언론은 '민족 自決' 눈떠라」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뒤의 예에 속하는 문부식은 김용옥이 질타하는 수구 언론들 가운데 하나인 『조선일보』(2003년 2월 4일)에 「슬픔에 관하여: 겨울, 광화문 단상. 친구여……반미를 외쳤던 나는 촛불을 들지 못하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거시 담론과 미시 담론의 장단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두 글 가운데, 심각한 논리적 오류로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후자이다. 일종의 선언문에 해당하는 김용옥의 글은 지나친 단순화와 선동성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거친 언어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논리의 맥락에서는 별다른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대북 송금' 문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민족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는 달리, 문부식은 일종의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정서적 차원으로 굴절시키면서 대중들의 건전한 정치 의식을 흐려놓고 있다.

김용옥은 간간이 거친 언어와 과장된 어법을 구사한다. 복권을 산 사람들을 거침없이 '우중 愚衆'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들을 대북 송금을 성토했던 사람들과 곧바로 일치시키고, 우리의 현대사에 씌어 있는 것은 '무지'일 뿐이라고 단순화한다. 그러나 큰 줄기의 논리에서는 빗나간 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미국과 수구 세력을 염두에 둔다면 말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거침없이 토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보수 언론을 포함하는 친미 반공 세력들의 행위가 얼마나 근거 없는 악의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역사 발전에 얼마나 위대한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김용옥의 글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덮어두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대북 송금)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낸 그의 노력은 지금의 현실에서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문부식의 글은 암담하고 불투명한 오늘의 정치 현실을 더욱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했던 그는 근래 미시적인 역사 현실 읽기를 통해 일상의 파시즘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그의 일련의 발언들은

역사의 큰 줄기나 국가적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을 문제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깃들 수밖에 없는 심리적 차원의 파시즘만을 문제삼는 데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 그는 『조선일보』에 발표한 글을 통해 미군에 의한 두 소녀의 죽음이 불러모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교묘하게 비판했다. 모호하고 불투명하며 비논리적인 서술을 통해 ‘촛불시위’라는 큰 그림 속에 들어 있는 잡티만을 트집잡다가 마침내 시위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세기를 넘어: 문부식의 시간여행”이라는 연재물의 첫 번째 글로 씌어진 이 글은 제목만 봐도 미국 문화원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예기치 않은) 죽음을 불러온 사람이 쓸 만한 글이 아님을 금세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이 글은 20년 전에 입은 그의 상처가 건전한 방향으로 치유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문부식은 먼저 ‘촛불시위’의 부드러움이 그 자신이 저지른 미 문화원의 방화보다 강력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시위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분노가 이유 있는 것임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말해지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복잡한 심정에 빠져든다. 문맥으로 볼 때 “말해지지 않는 것,” 번역투의 어감을 씻어내지 못한 이 한 구절은 시위자들이 말하지 않은 것, 또는 그 시위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시위 현장의 위세에 눌려) 말하지 못한 것, 그렇지만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문부식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거나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떠맡고 나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우리가 느낀 고마움을 거둬들이고 싶게 할 만큼 치명적인 독소가 서려 있다.

여기에서 그 글의 정서적 울림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지면의 제한 때문에 핵심적 내용만 간추려볼 수밖에 없다.

(1) 그는 먼저 양희은이 ‘국민가수’로 소개된 것을 문제삼는다. 누구나 ‘가수’ 앞에 놓인 ‘국민’이란 관형어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말에서 전체주의적 기미나 정치성 대신 ‘모든 국민이 알 만한’이란 함의를 알아차릴 수는 없는 것일까? 사회자가 그만큼 유명한 가수를 소개할 때 그 정도의 과장도 허용될 수 없는가?

(2)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다”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명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엄밀하게 보면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시위 현장의 구호에서 반어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가? 설마 그가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너희의 자주독립성을 침해했느냐’고 반발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 그는 이 말에서 ‘슬픔’이 정서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데에서 불편한 심정에 빠져들었을 터이고, 그래서 그보다 그를 더 불편하게 했던 잡지의 제목(“21세기, 반미의 달라진 풍경: 미국이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려?”)을 떠올렸을 것이다.

(3) 그는 또 “살인미군 처단하라!”라는 말에서 자신의 행위가 ‘살인방화’로 낙인찍혔을 때의 상처를 떠올리며 가슴아파한다. 그리고 그는 시위 현장의 언어가 “사실들을 벗어나고 있었다”고 단정한다. 광화문의 언어가 사실을 벗어나었다면, 양희은은 국민가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거나 자주독립성이 깃뻛힌 적이 없으며, 미군에 의한 살인은 없었다는 것이 된다. 두 여학생이 과실치사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원인 제공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린 마당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그들을 ‘살인미군’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4) 미군은 ‘살인면허증’을 받고 한국에 온다는 어떤 연사의 말은 누가 봐도 사실적 표현이 아니며, 시위 현장에서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니, 이 대목에서 문부식이 그런 발언과 행위를 ‘작위적 분노’로 부르며 그 폐해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사회자가 경찰들을 향해 “시민들이 다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한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경찰로 간주하겠다”고 한 발언을 전체로서의 미국(인)과 한국(인)을 대비시키는 ‘단순한 언설’이라고 지적한 것은 논리적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에도 생생하게 비쳤듯이, 그 이전에 우리 경찰(이런 표현도 정확

성을 기하려면 '일부 경찰'로 써야 하겠지만)이 시위자들을 방패로 찍고 곤봉을 마구 휘두르며 과잉 진압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들이 어느 나라 경찰이야' 하고 반문하는 정도의 심정에는 누구나 빠졌을 수 있기에, 그리고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것처럼 '단순한 언설'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6) 문부식은 '슬픔의 힘'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모인 것은 국적이거나 '거창한 역사 의식' 때문이 아니라 고유한 생명을 박탈당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못박는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슬픔 때문에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7) '소파 전면 개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도 옳다. 그러나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나마 관찰시켜 보려는 사람들을 꾸짖을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누가 소파가 개정된다고 해서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할 몫"이 다 사라진다고 말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당사자들이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가? 미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8) 그리고 그는,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가 주권이 회복되어도 "두 생명의 채울 수 없는 자리"는 여전히 남는다고 비장한 울림을 실어 말한다. 이런 말을 통해 문부식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녀들의 죽음을 주권이나 미국 대통령의 사과 같은 것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구나 "반미운동의 새 장이 열렸다"는 것과 같은 어쭙잖은 말은 입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의 제안은 간단명료하다.

(9) 그것은, 시위가 두 생명을 잃은 '비극의 구체성'을 잊게 하거나 넘어서는 어떤 목표와도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금기사항을 어기면 그곳의 슬픔은 '동원된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시위'를 동원된 슬픔의

장으로 보고 있다. 시인이기도 한 그는 개인적 차원의 순수한 슬픔 이외의 어떤 정서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충고한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11) 촛불은 두 소녀가 죽은 “그 순간 그곳”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시민운동이 있을 수 없었던 전통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 사회에서일지라도 억울한 죽음을 본 마을 사람들이 관가에 몰려가 촛불이라도 들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순간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3 문부식은 편지투를 글쓰기 형식으로 선택했다. “친구여” 하고 부르는 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호소력을 지닌다. 거기에는 그는 ‘슬픔’의 정서를 끌어들이어 글 전체에 비극적 서정을 깔아 놓는다. 그는 정서적 언어로 시위 현장의 격한 언어를 금 바깥으로 밀어내려 애쓰고 있다. 그의 언어는 먼저 시위 현장에서 이뤄지는 언어의 단순성과 비사실성을 겨냥한다. 이른바 ‘운동권’에 몸담았던 그가 시위의 메커니즘이나 구호의 수사학을 모를 리 없다. 구호는 과격함 쪽으로 과장되거나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앞의 글에서 그가 지적했듯이, 사실이 아닌 언어(살인면허)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시위 군중은 개인들로 이뤄져 있지만 그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말들은 자제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듯, “실재하는 현실의 복잡함과 우리 안의 술한 문제”들이 부정되거나 우리의 이성적 사유가 증발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때 그곳의 필요에 의해 개인적 언어와 사유는 잠시 유보될 뿐이다.

다수의 권리와 자유가 짓밟힐 때 그 피해자들이 부당한 권력과 폭력에 저항하는 방법은 다수성과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언어뿐이다. 그래서 시위 현장의 언어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해서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단순하거나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의 무기적 속성은 과격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창한 역사 의식이나 이념적 목표”와 “슬픔의 힘”을 직접 대비시키고 있는 그의 글에 스며 있는 정서적 환기력도 그 쓰임새에 따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그가 ‘역사 의식’이라는 말 앞에 구태여 ‘거창한’이란 형용사를 붙여놓은 것도 ‘역사 의식’을 내세우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어쨌든, 그가 쓴 글이 『조선일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부시의 어설론 사과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해낸 것이 된다.

문부식이 ‘그 순간의 그곳’을 강조하는 심리적 배경에는 1982년에 있었던 그 자신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때의 사건은 그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터이고, 그때의 예기치 못한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속죄의 길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슬픔은 결코 순수하게 보존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그것은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면서 변화한다. 좋은 삶든 그런 변화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그러나 슬픔과 분노가 뼈에 사무치면 원한이 되고, 그것은 변화의 힘을 지닌 정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게 한다. 이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불건강한 정서적 응어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원 解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촛불시위’는 원한으로 침전될 가능성이 큰 슬픔을 그 자체로 풀어내는 한편, 그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보여준 예에 속할 것이다.

문부식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전략은 개인의 순수한 정서와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를 내세워 ‘촛불시위’와 같은 집단적 정치적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차원은 정치적 역사적 차원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내장하고 있다. 일상은 이념적 지양 없이 재생산되는 연속적인 삶의 장이기에, 더 크고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운동성이 차단되면 늪과 같은 정체 停滯 속으로 빠져들 위험성을 늘 지니고 있다. 술집에서 이뤄지는 노동자들 사이의 대화나 이웃집 아낙네들끼리 나누는 잡담에도 정치성을 떨 수 있는 잠재력이 깃들어 있다. 다만, 어떤 불온한 정치 세력이 그들을 광장

으로 불려내 햇불을 들게 한다면, 그 힘은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치에 의해 동원된 군중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때, 동원된 군중의 환호 소리는 수많은 (노동자와 유태인들의) 울부짖음을 뒤덮어버렸다(아마도 문부식은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시위는 불온한 권력에 사주된 것이 아니기에, 전쟁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문부식은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일상에서 역사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물질적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권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는 ‘슬픔’의 정서가 정치적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을 추적하기는커녕 그 무국적성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국적성은 부정부주의자들의 이념에서 본 바와 같이 무지개 빛 꿈을 내재하고 있지만 순수는 아니며, 거기에는 얼마간의 작위적 관념이 깃들여 있기도 하다. 그는 시위자들의 ‘작위적 분노’를 매도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말하는 슬픔 역시 작위적이다. 그가 시위자들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슬픔’은 순수한 정서가 아니라 심리적 족쇄일 뿐이다. 그는 아무도 부정하기 어려운 ‘슬픔’이라는 정서적 울가미를 숨기고 있기에, 시위자들의 분노에도 ‘이성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문부식의 논리를 따르다면, 어떤 개인적 행위에도 정치적 국가적 민족적 의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행동할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정당하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개성’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일정한 사회적 성장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따라서 결코 개인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점은 옳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어떤 한 사람의 ‘개별성과 고유성’만을 문제삼아야 한다면 애초에 촛불시위는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과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압축하고 있기에, 광화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두 손에 촛불을 받쳐들었던 것이다. 그가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겨울 광화문이 창조한 것이 있다면 촛불의 물결을

반미의 물결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의 자리와 그곳에서 추구되어야 할 삶의 변화일 것이다”라는 문장은 조건절의 시제 時制와 주절의 그것이 틀려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의식인 것이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 부드러운 시위를 통해 민족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미반공만을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각성의 계기를 준 것이 아닐까?

4 미군이 아무런 저항 없이(우리는 그들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이후,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의식에는 ‘그 순간의 그곳’은 우리 역사에 편재했던 불행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말하자면 대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의 마음엔 문부식이 생각하는 순수한 슬픔과 함께 그런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한미 관계의 기본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단순한 반미가 아니라고 역설했지만, 설사 그것이 반미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겨우 진상이 밝혀진 ‘노근리 사건’을 비롯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야만적 행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곳’에서 이뤄진 불행한 사건이 순수한 슬픔만으로 덮여질 수는 없다. 슬픔과 분노에도 역사성이 깃들여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생존권이 미군들에게 묵살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사, 2001)에서 세 가지만 인용해 보자.

젊은 조종사가 커피를 짭 들이키고는 “빌어먹을, 사람들이 저기 서서 손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하고 말했다. “짜버려,” 그는 확고한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군인이야.” “그렇지만, 빌어먹을, 몽땅 흰 파자마 같은 걸 입고선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 “여자나 애들이 보이냐?” “여자요? 모르겠는데요. 여자도 바지를 입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럼 군인들이야. 짜버려.” (Walter Karig, “Korea Thougther Than Okinawa,” Collier’s, 1950년 9월 23일)

톰슨은 한 미군 해병대원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낯이 나간 상태에서 초로의 민간인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미군 헌병들이 “적을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원숭이인 듯이 이야기한다”고 썼다. 중군 기자들 사이에서조차 “모든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을 죽이는 것이었다. ‘오늘……나는 노란둥이 하나를 죽여야지.’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노란둥이’ (gook, 미국인들이 황색인종을 경멸하며 부를 때 쓰는 속어 : 옴긴이)라고 불렀는데, 톰슨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너그러운 미국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거나 그들의 집과 재산을 박살낼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eginald Thompson, Cry Korea, London: MacDonald, 1951)

마을과 들판에 있던 주민들이 폭탄 세례를 받고 죽어 있었는데, 네이팜탄이 공격했을 때 그들이 취하고 있던 자세 그대로였다. 예컨대 막 자전거를 타려는 남자, 고아원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50명의 소년소녀들, 이상하게도 상처 하나 없이 한 손에 시어즈-로빅 카탈로그에서 찢어내 “매혹적인 여성용 잠옷 산호빛”, 2.98달러, 우편 주문 번호 3,811,294에 크레용이 칠해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는 주부가 그러했다. (뉴욕 타임스, 조지 배럿의 기사, 위의 책, 413면)

이상은 한국전쟁의 초기 단계에 서구 기자들의 눈에 들어온 양민 학살의 사례들이다. 미국은 원자탄을 제외한 모든 신무기를 사용했으며, 네이팜탄을 쏟아 부어 불바다를 만드는 한편, 거대한 댐들을 파괴해 계곡과 강줄기의 근처에 있는 논과 밭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2백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1950년 11월 중국군의 참전이 이뤄지면서 매카서는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재량권을 요구했다. 12월 24일 그는 26기의 원자폭탄을 필요로 하는 ‘저지목록 물 목록’을 제출했다.

사후에 출간된 인터뷰에서 매카서는 열흘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계획이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만주의 좁은 통로를 따라……30~50기의 원자폭탄을 줄줄이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50만에 달하는 중국국민당군대를 압록강에 투입하고, 그러고는 “우리의 진방에다 동해에서 서해에 이르기까지 60년 내지 120년 간의 활동성을 지닌……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적어도 60년 동안은 북한에서 한국을 육상으로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내 계획은 확실한 것이었다”

나는 이상의 인용들을 통해 미국인만이 인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 당시까지 서양 사람들에게는 유색인종의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전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쟁을 쉽게 끝내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이다(1·4후퇴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반공 이념보다는 원자폭탄에 대한 공포에 내몰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서 그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색인들 자신이 그들의 인명도 백인들에 못지 않게 소중하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뿐이다. 세계인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시 정권은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정권이며, 지금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상대국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미국 군인에 의한 두 소녀의 죽음을 미국과 관련시키지 않고 순수한 슬픔 속에만 파묻혀 있으라고 하는 충고는 휴머니즘적 어법으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슬픔'은 '거창한 역사 의식' 못지 않게 관념적이기 때문이다.

미 군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그들은 70퍼센트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호로 '조선인민공화국'을, 8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정치 체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공산당이 불법화됨에 따라 좌익 운동가들은 지하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롤백 작전으로 선회한 미국은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자 세계 언론이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한 상태에서 중산간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이처럼 진행된 롤백 작전의 성공을 토대로, 미국 국방부는 1950년 6월 19일부터 1주일 동안 SL-17로 알려진 전쟁 계획을 승인하고 유포했다. "이 계획은 조선인민군의 침공, 부산 방어선으로의 즉각적인 후퇴와 부산 방어선의 방어, 그런 다음에는 인천에서의 육해공군 합동 상륙작전을 가졌겠다"(앞의 책, 364면). 우리는 한국전쟁이 미국이 이미 세워놓았던 이런 전쟁 계획과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됐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 남한에는 더 이상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야말로 북한의 남침에서 우리를 지켜준 구세주처럼 여기게 됐고, 이런 심정적 토대 위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를 너그럽게 봐 넘기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

“평화는 포성 砲聲의 침묵 이상의 것이다. 전선에서 총성이 그쳤다고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 중요한 것은 손의 무장 해제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무장 해제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낀다. 무기를 내려놓았어도 적의를 품은 채 있는 두 개인이나 두 공동체 사이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도미니크 피르 신부의 말이다. 우리는 그의 말처럼 “정신과 마음의 무장 해제”를 원한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한반도의 상공에 질게 드리운 전운을 걷어내기 위해 때로는 광장으로 모여드는 일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들 속에 푸른 곰팡이처럼 번져 있는 맹목적인 친미반공 의식을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현대사는 다시 씌어져야 하고,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움아매고 있는 분단지향적 법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와 함께 그런 허상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보수 언론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그리고 그들에게 고용된 많은 지식인들에 대한 담론적 투쟁을 멈춰서도 안 될 것이다. ■

황경수 clhwks@hotmail.net | 문학평론가.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실천문학』 주간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삶과 역사적 진실』(창작과 비평사 1995), 『소설과 진실』(해냄 2000) 등이 있다.